

# 필요한 SOC는 썩~ 빼고 문화·스포츠로 '생색'

##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 시범사업 내용과 문제점

### 지역 산업과 연결 안되고 단순한 인적교류 집중 굵직한 사업 누락 실속 없어...지방비 부담도 커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 시범사업에는 목포~부산 철도고속화 사업 등이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굵직한 사업이 빠져있다.

또 문화·스포츠 행사 위주의 프로젝트가 많아 '실속없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다리 놓고, 행사에 집중=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다리 건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화·스포츠 행사에 집중돼 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본격적인 사업은 2015년 해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동서통합지대 시범사업은 ▲동서통합 교량 건설 ▲동서통합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협력 사업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포츠 사업 등이다.

동서통합 교량은 오는 2015년 공사에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또 동서통합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협력 사업은 광양, 구례, 하동군 일대 섬진강변의 문화 스포츠 행사를 발굴·육성하는 정책이며 예산은 94억원이다.

광양과 구례의 매화·산수유, 하동의 벚꽃·배꽃·복차 등 이들 지역에서 각기 열리는 축제와 행사를 서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프로젝트다. 오는 2014년 2월까지 컨설팅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가칭 '동서통합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협력 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밖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포츠 사업은 섬진강을 활용한 수상레포츠 산업 육성책이다. 예산 198억 원을 들여 황포돛배를 띄울 수 있는 나루터를 복원하고, 래프팅 승하선장, 강변 쉼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지자체는 '시큰둥'=이번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 전남도 경남 지자체들은 "정작 필요한 철도·교량 등 대형 사업은 빠져있고,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서둘러 시범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하기는 어렵지만,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에 대형 SOC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전남도 등이 요구했던 한려대교(예산 1조1770억원·여



수~남해 연결)와 목포~부산 철도고속화(보성~목포 구간 개통 등) 사업은 시범사업에 모두 빠져있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들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시범사업이 지역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문화·축제·스포츠 행사 등 단순한 인적교류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남해안 선벨트(Sun Belt)와 우주항공 클러스터 등 섬진강 일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와 정부의 온도차가 너무 큰 셈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사업별로 40~50%에 달하는 것도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는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권 4곳(진주·사천·남해·하동)과 전남 동부권 5곳(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을 연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현재 기본 계획을 짜기 위한 연구 용역 중이며 오는 10월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광명기자 kroh@kwangju.co.kr

##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39) 고갱의 고뇌

“사십대 문턱에 들어서면/바라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가다릴 인연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안다.../씨뿌리는 이십대도/가꾸는 삼십대도 아주 빠르게 흘러/거두는 사십대 이량에 들어서면...” (고정희 '사십대'중에서)

이 나이가 되니, 나이 서른이나 마흔의 성장통을 노래한 시인들이 다소 감정과잉으로 느껴진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서른 무렵은 '그저 사느라'고 바쁘게 지나가는 시절이 아니었던가. 예민한 촉수를 지닌 예술가들에게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나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폴 고갱(1848~1903)을 모델로 한 서머셋 몸의 소설 '달과 육펜스'에서 주인공은 마흔이 되던 해 출연히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예술을 향한 긴 여행을 떠난다. 실제로, 주시종개인이었던 고갱은 서른 다섯에 직업화가의 길을 감행했다.

지난주 관람했던 서울 시립미술관의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전'에서 마주한 것은 오랜 망설임 끝에 먼 여정을 나섰던 '고갱의 고뇌'였다. 예술에 매혹됐던 고갱은 20여 년에 걸쳐 파리에서 브르타뉴, 타히티, 마르케사스제도 등

고갱 '우리는 누구인가(부분)

미지의 세계를 찾아 헤맸다. 고갱이 꿈꾸었던 것은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지상 낙원'이었으며, 알고 싶었던 것은 '생의 본질'이었다.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가 그 답이 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념비적인 작품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고갱은 혼신의 힘을 쏟아 이 그림을 그렸다. 폭 4m에 달하는 벽화양식의 거대한 이 작품은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삶과 죽음에 이르는 운명을 단계적이고도 서사적으로 묘사하면서 고갱이 사색했던 근원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되물고 있다.

고갱의 숙명적 물음 앞에서,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전시장 안의 수많은 관람객들이 그러했듯이 잠시 동안이나마 '내가 누구인지' 생각에 잠겨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호남<충청> '인구 역전' 가속화

## 두 달만에 격차 6000명 넘게 벌어져... 정치 지형에도 영향 미칠 듯

지난 5월 광주와 전남·북의 인구가 1925년 이후 처음으로 충청권에 추월당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그 격차가 6000명 넘게 벌어졌다. (광주일보 6월 11일자 1면 참조)

7월 안전행정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주민등록 기준 호남권 인구는 광주시 147만2357명, 전남도 190만6028명, 전북도 187만1570명 등 총 524만9955명이었다.

같은 시기 충청권 인구는 세종특별자치시 11만7369명, 대전광역시 153만226명, 충남도 203만9668명, 충북도 156만9348명 등 525만6611명이었다.

지난 5월 충청권 인구는 처음으로 호남을 앞질러 408명이 많았는데, 2개월 만에 충청지역에 사람이 더욱 몰리면서 호남과의 인구 격차가 6656명으로 크게 벌어졌다.

호남은 지속적인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만 충청권은 정부 부처

이주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내년 말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고,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는 등 충청권에 인구 유입 호재가 많아 두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지역간 인구 역전 현상은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역전에 따라 두 지역 간 19세 이상 유권자 수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월 유권자 수는 호남권(415만4832명)이 충청권(414만6931명)

보다 7901명이 많았지만, 두 달 새 그 격차는 3201명(호남 416만44명, 충청 415만6843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18대 대선 때 두 지역 유권자 수 격차는 2만3865명(충청 410만4726명, 호남 412만8591명)이었다.

호남·충청 간 인구 변화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빛가람도시로 옮겨오는 공공기관의 이주 작업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고, 관련 산업체 등을 유치하는 등의 후속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명기자 kroh@kwangju.co.kr



노르웨이를 방문중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7월 NTNU대학교 해양전략연구소 인그바르 스트로움맨(Ingvaid Strømman) 소장(왼쪽 네 번째)과 양식기술개발, 수산양식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우량 신안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김중식 완도군수, 스트로움맨 소장, 박지사. <전남도 제공>

## 노르웨이 수산시스템 전남에 도입

### 전남도·노르웨이 NTNU해양연구소 해양수산 기술 개발 협력 협약 체결

7월 박준영 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노르웨이 양식기술 교류단'은 노르웨이공과자연과학대학(NTNU)의 해양전략연구소와 해양수산 기술개발 협력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산관련 전문가의 교류, 양식기술 개발 부분의 연구 협력 등 실질적인 상호 협력에 나서게 된다.

박준영 지사는 "노르웨이의 수산시스템을 전남의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고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르웨이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NTNU는 자국 공학 기술자의 97%를 배출하는 등 과학기술 부문 인프라가 풍부하다.

○광명기자 kroh@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파편은 고스란히 국민 몫

###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 씻코

코속에서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편효과! 만성비염(감염, 알레르기, 비종양)의 과잉으로 인한 점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자극! 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한 점막 유지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은가죽이 상해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직형 하키의 알만약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비염/간지러운 코/코속의 염화물 제거/코막힘 완화/코골이/코딱지 제거/코염/코막힘/코골이/코딱지 제거/코염/코막힘/코골이/코딱지 제거

※연령, 증상에 따라 적당히 사용하십시오

###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 똥코

코속에서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배편효과! 코막힘으로 인한 잠과 생활의 불편을 일관 수축으로 즉각적 효과를 발휘
- 중성액!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들 해소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환부에만 작용하는 수직형 하키의 알만약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코막힘/코골이/코딱지/코염/코막힘/코골이/코딱지 제거/코염/코막힘/코골이/코딱지 제거

※연령, 증상에 따라 적당히 사용하십시오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담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